

문화재청 공고 제2017-38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11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 1. 4.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대상 : 총 3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보물 제525호 삼국사기(三國史記)	9책	옥산서원
2	보물 제723호 삼국사기(三國史記)	9책	조동기·조성은· 조영기·조왕기
3	보물 제1866호 삼국유사 권1~2 (三國遺事 卷一~二)	1책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박물관)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8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금강반야바라밀경 및 제경집 (金剛般若波羅蜜經 및 諸經集)	1첩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용담선원
2	이광사 필 서걸 (李匡師 筆 書訣)	3첩	전성우·전영우 (간송미술문화재단)
3	김홍도 필 마상청앵도 (金弘道 筆 馬上聽鶯圖)	1폭	전성우·전영우 (간송미술문화재단)
4	김홍도 필 고사인물도 (金弘道 筆 故事人物圖)	8폭	전성우·전영우 (간송미술문화재단)

5	김홍도 필 과로도기도 (金弘道 筆 果老倒騎圖)	1폭	전성우·전영우 (간송미술문화재단)
6	신윤복 필 미인도 (申潤福 筆 美人圖)	1폭	전성우·전영우 (간송미술문화재단)
7	백자 사용원인 (白磁 司饗院印)	1점	전성우·전영우 (간송미술문화재단)
8	나전경함(螺鈿經函)	1점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다. 지정 및 변경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국보 지정 예고】

□ 보물 제525호 삼국사기(三國史記)

- 지정현황 : 보물 제525호(1970.12.30 지정)
- 명 칭 : 삼국사기
- 소 유 자 : 옥산서원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 수 량 : 50권 9책
- 규 격 : 세로 29.5×가로 21.8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線裝)
- 제작연대 : 1573년(선조 6)
- 사 유

『삼국사기』는 김부식(金富軾, 1075~1151)이 1145년(고려 인종 23년)에 삼국시대의 역사를 기전체(紀傳體)로 편찬한 것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와 함께 삼국시대 연구의 기본사료로 인식되고 있다. 보물 제525호 『삼국사기』는 1573년(선조 6) 경주부(慶州府)에서 인출(印出)하여 옥산서원에 보내준 것으로, 고려시대에 처음 새긴 원판(原板)과 조선 태조 때에 개각(改刻)한 것, 종종 때 다시 개각한 것 등 3종의 판(板)이 종류별로 섞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총 9책으로 구성된 완질본(完帙本)이자 인출상태와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또한 1573년 당시 유통경로와 더불어 사용한 종이와 장정(裝幀) 양식 등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조선시대 학술 동향은 물론 목판인쇄 사정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한국고대사 연구의 주요한 참고가 되는 보물 제525호 『삼국사기』를 국보로 승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다.

□ 보물 제723호 삼국사기(三國史記)

- 지정현황 : 보물 제723호(1981.7.15 지정)
- 명 칭 : 삼국사기

- 소 유 자 : 조동기·조성은·조영기·조왕기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 수 량 : 50권 9책
- 규 격 : 세로 30.0×가로 20.2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線裝)
- 제작연대 : 1512년(중종 7) 추정
- 사 유

보물 제723호 『삼국사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관찬사서(官撰史書)라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 속에 반영된 역사의식의 객관성과 민족자아의식에도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1512년까지 증보된 보각판에 기초하여 찍은 인출본으로, 인출 당시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총 9책의 낙장이 없는 완질본이다. 고려와 조선시대의 판각본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고려 및 1394년 잔존 목판본의 조성형식과 보존상태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보물 제723호 『삼국사기』는 보물 제525호와 더불어 우리나라 상고사 연구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료라는 중요한 의의와 함께 문화재로서도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어 국보로 승격하여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다.

□ 보물 제1866호 삼국유사 권1~2(三國遺事 卷一~二)

- 지정현황 : 보물 제1866호(2015.3.4 지정)
- 명 칭 : 삼국유사
- 소 유 자 : 연세대학교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 수 량 : 2권 1책
- 규 격 : 세로 31.1×가로 20.0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
- 제작연대 : 조선 초기
- 사 유

『삼국유사』는 고려 일연(一然) 스님이 1281년(충렬왕 7)이 편찬한 역사서이다. 보물 제1866호 『삼국유사』는 조선 초기 판본으로, 신라·고구려·백제·가야 및 통일신라·후고구려(고려 포함)·후백제의 간략 연표인 「왕력(王曆)」과 함께 고조선~후삼국의 역사·문화적인 사실을 기술한 「기이(紀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비록 총 5권 중 권1~2권만 남아 있으나, 조선 초기본으로서 결

장(缺張)이 없는 완전한 인출본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보물 제1866호 『삼국유사』는 1512년(중종 7)에 간행된 『삼국유사』(壬申本) 중 판독하기 어려운 글자를 보완하고 현존하지 않는 인용문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미 지정된 국보 제306호(개인소장)와 제306-2호(서울대 규장각 소장)와 비교해보아도 대등한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국보로 승격하여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다.

【보물 지정 예고】

□ 금강반야바라밀경 및 제경집(金剛般若波羅蜜經 및 諸經集)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금강반야바라밀경 및 제경집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용담선원
- 소재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53
- 수 량 : 1첩(20板 100折)
- 규 격 : 세로 17.0× 가로 701.0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版本)
- 형 식 : 절첩본(折帖本)
- 조성연대 : 1370년(공민왕 19년) 추정
- 사 유

『금강반야바라밀경 및 제경집』은 「금강반야바라밀경」, 「대방광불화엄경입불사의해탈경계보현행원품(大方廣佛華嚴經入佛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 「불유교경(佛遺教經)」, 「위산경책(滄山警策)」, 「대불정수능엄신주(大佛頂首楞嚴神呪)」, 「마리지천다라니(摩利支天陀羅尼)」 등 고려시대에 유행한 불교경전과 관련 자료로 구성된 첩본(帖本)이다. 경전의 구성 등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 보기 드문 희귀본이며, 발문과 시주질(施主帙) 등을 통해 간행시기와 참여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고려시대 불교경전 연구에 크게 활용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보물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다.

□ 이광사 필 서결(李匡師 筆 書訣)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이광사 필 서결(李匡師 筆 書訣)
-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 수 량 : 3첩
- 규 격 : 乾 27.4×13.0×3.0cm, 坤 27.4×13.0×3.0cm, 附 23.6×21.2cm
- 재 질 : 표지: 나무 / 본지: 견 / 장황: 종이
- 형 식 : 乾·坤: 서첩 (선풍엽) / 附: 선장 (5침)
- 조성연대 : 1764년(영조 40)
- 사 유

‘이광사 필 서결’은 조선후기 대표적 서예가 중 한 명인 원교(圓嶠) 이광사(李匡師, 1705~1777)가 지은 서예이론서인 『서결(書訣)』 중 전편(前篇)에 해당하는 내용을 필사한 것이다. 乾(乾)·곤(坤) 및 부(附) 3첩으로 구성되었고 ‘곤’첩의 마지막에 이광사가 1764년 6월 1일 큰아들 이긍익(李肯翊)에게 써서 준다는 글이 있다.

‘서결’의 전편은 주로 서예의 기본적인 필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론과 평론을 겸했던 이광사의 면모와 필력을 잘 보여주는 서예작품이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매우 희귀한 서예이론이자 우리나라 서예이론 체계를 연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이다. 해서·행서·초서 등 다양한 서체를 혼용해 독특한 조화미를 이룬 점 등 예술적인 작품성 또한 뛰어나다. 이광사의 대표작 ‘서결’은 조선 18세기 서예사에 있어 큰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

□ 김홍도 필 마상청앵도(金弘道 筆 馬上聽鶯圖)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홍도 필 마상청앵도(金弘道 筆 馬上聽鶯圖)
-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 수 량 : 1폭
- 규 격 : 세로 117.2 × 가로 52.0cm
- 재 질 : 종이에 수묵담채
- 조성연대 : 18세기 말~19세기 초
- 사 유

‘김홍도 필 마상청앵도’는 조선 후기에 활약하며 최고의 화가로 높은 평가를 받았던 김홍도(1745~1806 이후)가 조선의 풍속을 소재로 삼아 자연과 교감하는 인간의 세심한 모습을 서정성 깊게 표현한 작품이다. 시동(侍童)을 대동한 선비가

말을 타고 길을 가던 중 꾀꼬리 한 쌍이 노니는 소리에 말을 멈추고 시선을 돌려 버드나무 위의 꾀꼬리를 무심히 바라보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인물 묘사에 사용된 섬세한 필선, 말과 마구에 사용된 부드러운 필법, 선비의 시선과 표정, 대담한 공간감 등이 잘 어우러져 김홍도가 추구한 한국적인 정서가 잘 표출되었다.

이 작품은 김홍도의 다양한 작품세계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화면 위에 동료 화가였던 이인문(李寅文, 1745~1824)의 시문이 쓰여 있어 두 사람의 우정을 알게 해 준다는 점에서 역사성이 높다. 조선 풍속화 중 가장 서정미가 뛰어난 작품으로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다.

□ 김홍도 필 고사인물도(金弘道 筆 故事人物圖)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홍도 필 고사인물도(金弘道 筆 故事人物圖)
-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 수 량 : 8폭
- 규 격 : 각 폭 세로 111.9 × 가로 62.6cm
- 재 질 : 종이에 수묵담채
- 조성연대 : 18세기 말~19세기 초
- 사 유

‘김홍도 필 고사인물도’는 김홍도가 주희(朱熹), 광무제(光武帝), 왕희지(王羲之), 도연명(陶淵明) 등 중국의 역대 인물들의 일화를 그린 고사도(故事圖)이다. 원래는 병풍 형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다. 조선시대 그림의 주제로 자주 차용된 중국의 고전적인 소재를 김홍도가 개성적인 화풍을 망라하여 구현한 작품으로, 산수배경과 인물에 있어 한국적 정취가 실감나게 표현되었다. 중국의 역대 은일자와 성리학자를 소재로 하여 동아시아 문인들이 애호했던 고사를 조선식으로 창출해 낸 대표작이며, 김홍도 만년의 양식이 집대성된 그림으로 한국회화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큰 작품이다.

□ 김홍도 필 과로도기도(金弘道 筆 果老倒騎圖)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홍도 필 과로도기도(金弘道 筆 果老倒騎圖)
-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 수 량 : 1폭

- 규 격 : 세로 134.6× 가로 56.6cm
- 재 질 : 비단에 수묵담채
- 조성연대 : 18세기 후반
- 사 유

‘김홍도 필 과로도기도’는 나귀를 거꾸로 타고 가면서 책을 읽는 당나라 때의 신선(神仙) 장과로(張果老)를 그린 도석화(道釋畵)이다. 장과로는 팔선(八仙) 중 한사람으로 백발의 용모를 지녔고 흰색 당나귀를 타고 다녔으며 박쥐를 대동하고 다닌다는 『신선전(神仙傳)』의 내용을 충실하게 형상화하였다.

김홍도는 이 작품에서 다양한 필선과 색채를 적절히 구사하면서 불로장생을 누리는 신선의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하였다. 조선 후기에 활약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던 김홍도가 도교 신선이라는 주제를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구현한 한국 도석화의 대표작이자 18세기 조선 예술계의 영수(嶺袖)였던 강세황(姜世晃)이 이 그림을 칭찬한 품평이 곁들여 있어 회화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사유로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

□ 신윤복 필 미인도(申潤福 筆 美人圖)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신윤복 필 미인도(申潤福 筆 美人圖)
-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 수 량 : 1폭
- 규 격 : 가로 114.0×세로 45.5cm
- 재 질 : 비단에 수묵담채
- 형 식 : 족자(簇子)
- 조성연대 : 18세기 말~19세기 초
- 사 유

‘신윤복 필 미인도’는 조선 후기 풍속화에 있어 김홍도와 쌍벽을 이룬 신윤복(약 1758-1813 이후)이 여인의 전신상(全身像)을 그린 작품으로, 화면 속 여인은 머리에 가체를 얹고 회장저고리에 풍성한 치마를 입고 있다. 부드럽고 섬세한 필치로 아름다운 여인의 자태가 묘사하였고 은은하고 격조 있는 색감으로 처리하였다. 자주색 회장 머리 띠, 주홍색 허리끈, 분홍색 노리개 등 부분적으로 가해진 채색은 정적인 여인의 자세와 대비되어 화면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마치 초상화처럼 여인의 전신상을 그린 미인도는 신윤복 이전에는 남아 있는 예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19세기의 미인도 제작에 있어 전형(典型)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미술사적 의의가 크다.

이러한 사유로 ‘신윤복 필 미인도’는 필치나 화풍에서 신윤복의 회화를 대표할

만한 작품이며 동시기 이와 유사한 그림이 많지 않다는 희소성 면에서도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어 보물로 지정하고 보존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 백자 사용원인(白磁 司饗院印)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백자 사용원인(白磁 司饗院印)
-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 간송미술관
- 수 량 : 1점
- 규 격 : 전체높이 10.5cm, 인면(印面) 가로×세로×높이 10×10.2×3.7cm
글자두께 0.2cm, 인뉴 높이 7.7cm
- 재 질 : 도토류(백자)
- 형 식 : 사자형 몸체의 손잡이가 달린 사각의 ‘司饗院印’ 도장
- 조성연대 : 18세기 후반
- 사 유

‘백자 사용원인’은 조선 궁중에서 식사와 음식을 담당한 중앙관청 중 하나인 사용원(司饗院)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든 백자인장이다. 일반적으로 보인(寶印)의 경우 인끈을 달아 묶었던 점과는 달리 백자 상형연적처럼 사자 형상을 만들어 붙인 점이 독특하다. 또한 사자 형상을 정교하고 세밀한 기법으로 조각한 후 청채(靑彩)와 동채(銅彩)로 장식한 것은 조선후기 백자 조성방법 가운데 가장 수준 높은 기법에 속한다. 이 작품은 실제 인장으로 사용한 유물이자 조선시대 관청에서 금속이나 석재 인장 이외에 백자를 인장으로 사용했음을 알려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현존하는 관인(官印) 가운데 ‘사용원인(司饗院印)’ 자체가 드물고 백자로 제작된 사례로는 유일할 뿐 아니라 시대성과 조형미를 모두 갖추고 있는 뛰어난 작품이다.

□ 나전경함(螺鈿經函)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나전경함(螺鈿經函)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높이 22.6cm, 41.9×20.0cm
- 재 질 : 침엽수판재, 자개 금속선, 골회, 옷칠, 쇠못
- 형 식 : 가구(함)

○ 조성연대 : 고려 후기(13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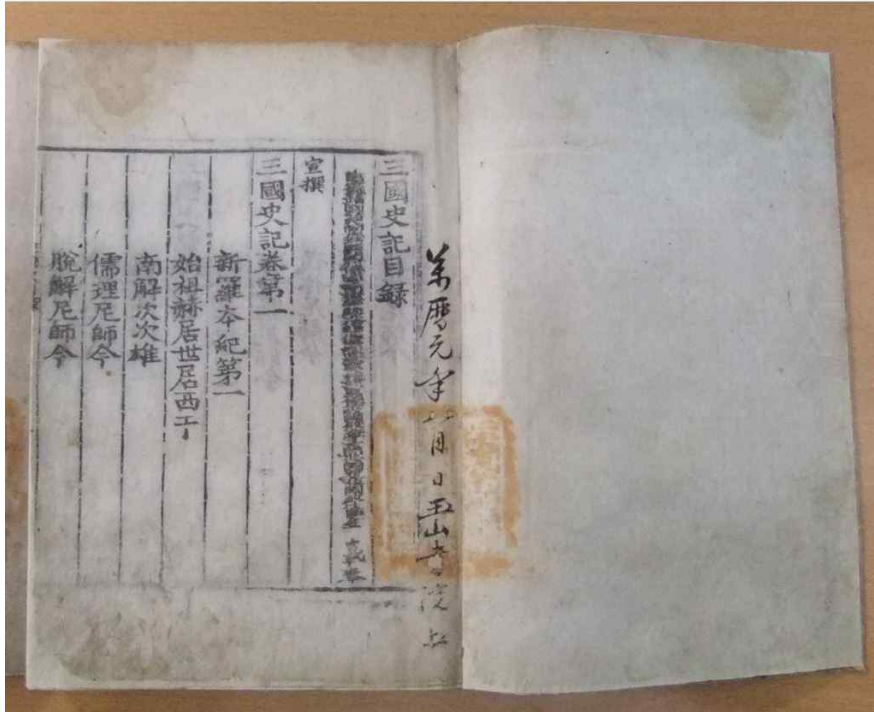
○ 사 유

‘나전경함’은 두께 약 1cm의 끈은결 침엽수 판재로 뚜껑 윗부분의 각 모서리를 모죽임한 장방형의 상자 형태이다. 고려시대 대장경(大藏經) 등 불교경전류를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에는 다량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국내외 소재 고려 나전칠기 공예품은 20점에 미치지 못하며, 그중 경함은 더욱 희소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나전경함’은 국내에 유일하게 알려진 고려 나전경함 유물이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인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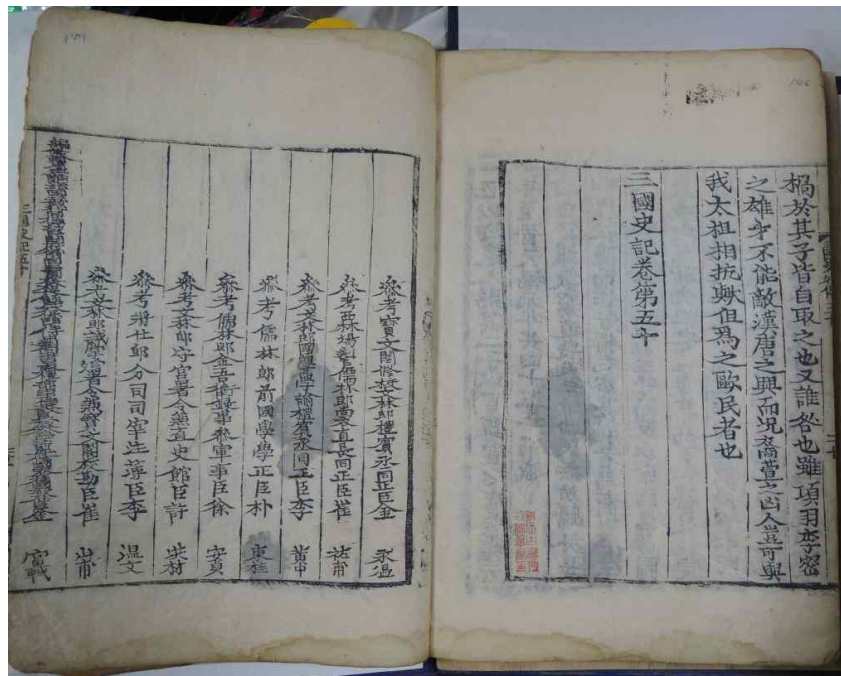
이 경함은 각 연결부에 쇠못을 박아 고려시대 백골의 짜임양식을 보여준다. 백골 위에는 천을 바르고 그 위에 골회(骨灰)를 입혀 자개를 부착하여 옷칠을 여러 번 하여 마감하였다. 여기에 나전을 잘게 잘라 꽃문양을 만들어 율동적인 통일감 있는 문양을 구성하였고, 문양대를 나누어 다양하고 화려한 무늬로 장식하였다.

국내 유일의 나전경함이자 고려 후기의 우수한 나전기술이 응집된 작품으로, 학술적·예술적·기술적인 측면이 뛰어나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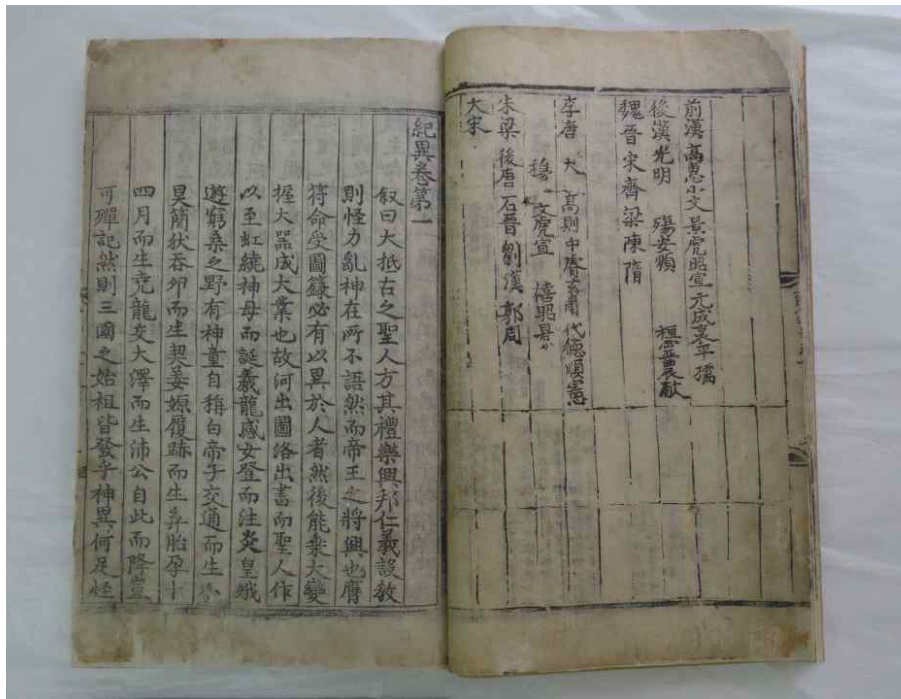
[첨부] 지정예고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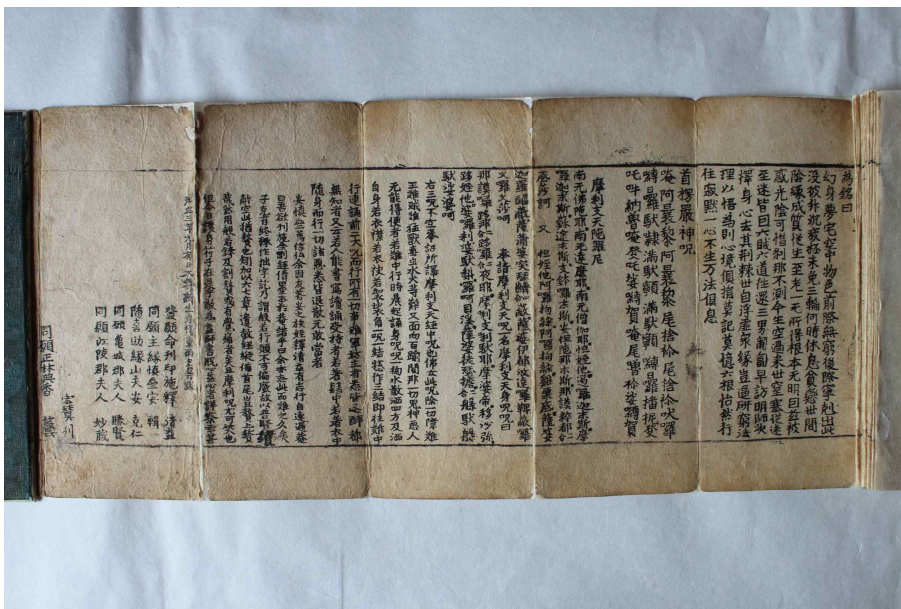
보물 제525호 삼국사기



보물 제723호 삼국사기



보물 제1866호 삼국유사 권1~2



금강반야바라밀경 및 제경집

書法

古人筆灑自易其難比之直管伸高而書之
使萬豪齊力一畫之內無上下內外之殊
下速字剛鋒有勁脆精鈍之變運筆
大率皆然吾東則庶末才必恆以筆
畫畫皆之之極其毫銳所林其墨濃而

滑下与者其要所經故淡而澀畫皆偏枯不
完既圓極其筆又才先於筆而引之有遠
鈍緩無力在國等其極之於罕畫
才於此雖天才高者濡染楷喪自趨鄙俗
不能超拔是以臨古灑書尤無以儼只傳瞻
其字甚可惜也余自幼學書心疑于此欲一

이광사 필 서결



김홍도 필 마상청앵도



김홍도 필 고사인물도(제3폭 무이귀도)



김홍도 필 과로도기도



신윤복 필 미인도



백자 사옹원인



나전경함